

## 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Exploring the field of feminist spatial theory:  
different narratives of feminist 'space'

고민경\*

《공간과 사회》는 2019년 6월 “여성주의적 공간론”을 시작으로 여성주의 공간철학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도시와 사회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장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2019년의 기획이 여성주의 시각과 이를 담은 공간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면, 2020년 6월 “복수로서 연구자와 방법론, 현장을 재탐구하기”는 여성주의 공간론의 관점을 담지한 방법론과 위치성의 논의를 확장하였다. 지난 두 특집호는 주로 북미에서 축적되어 온 여성주의 공간론을 국내의 사례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에서 어떻게 경합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지난 특집호들은 한국사회의 일상 공간과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정치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여성주의 공간론이 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탐색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특집호는 지난 두 특집호에 이어 젠더, 여성주의, 공간의 교차지점들을 탐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여성주의 공간의 논의를 한층

---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koh.geo54@knu.ac.kr).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산층의 투기 아비투스로서의 주택에  
서부터 시작하여 비혼 여성들의 집, 감금지리와 시설, 그리고 결혼이주  
자들의 무용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들의 다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총 4편이 실린 이번 특집호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례 연구, 이론의 논의 및 문헌 리뷰 논문으로 구성되  
었다.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성주의 공간론  
의 지평이 확대될 기대하면서 각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시현의 논문은 요즘 국내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주택장에서 나타나는 도시 중산층의 투기 그리고 투기에 대한 아비투스  
를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를 통해 참신하게 분석하였다. 주택의 구  
입은 보통 한 ‘가구’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지만 최시현은  
이를 젠더에 초점을 두어 주택의 구매와 관리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설  
명한다. 이를 통해 도시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계급과 젠더 규범이 상호  
작용하여 투기에 대한 문화적 동의구조, 즉 투기아비투스를 형성해 념  
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주택 구매를 통해 중산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주택에 대한 재투자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들을 통해 자가소유 이후에도 지속되는 도시 중산층의 독특한 계급성을  
드러냈다. 이 논문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아래서 여성들이 모성과 가정  
성이라는 가치로, 그것도 무급으로 수행했던 투기적 주택실천이 오늘날  
의 도시중산층이라는 인구집단을 모순적으로 구성해 왔다는 점을 문제  
로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는 최시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돌봄에 보  
다 객관적으로 반응하는 젊은 여성들의 등장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성별화된 투기아비투스의 형성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등장하는 신유진의 논문은 최시현의 논문에서 중산층의 주거 규  
범으로 인식되었던 ‘아파트’에서 벗어난, 혹은 정상가족의 주변부에 위  
치한 청년들의 주거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최시현과는 사뭇 다르게 ‘집’  
이라는 공간을 해석해낸다. 그는 20대, 30대 비혼 — 결혼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는 — 여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성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만들어왔던 ‘집’은 비혼여성들, 특히 ‘함께살기’를 선택한 비혼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곳임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대안적으로 집을 꾸려 나가는지를 설명한다. 함께살기를 통해 집은 물리적 공간이나 그 내부를 채우는 혈연관계 기반의 가족/가정을 넘어서서 주체들이 안팎 모두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곳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신유진의 분석은 더 나아가 이러한 함께살기가 비혼 혹은 1인가구의 적극적인 생활방식의 한 선택지로서, 이를 상상하기 쉽게 만드는 도시공간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곧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주거 지원 정책의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비혼 혹은 1인가구의 위치성을 고려한 도시환경 및 주거 공급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현철의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인 감금지리의 위상학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시설은 누군가를 격리하고 배제하는 공간이며, 다양한 시공간적 축들 사이에서 격리와 배제는 재/구성된다. 시설 내에서 “행위(자), 몸들(bodies)과 물들(things)”이 맺는 사회-공간 관계가 시설에서 작동하는 감금정치 시스템을 재/구축하기에 시설에 대한 교차성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현철은 감금지리의 논의를 가져온다. 단순히 감금지리의 이론과 논쟁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금지리 논의를 선도하는 학자들의 개인적이고 또 학술적으로 맺는 상이하고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들이 감금지리의 개념들과 조우하고 경합하여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논의의 위상도”를 형성해 옴을 강조했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밝힌 시설에 대한 논의, 시설의 교차적 사유를 보다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자 사건일 것이다.

끝으로 문경연의 논문은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사례

를 통해 ‘민족 무용’ 공연 과정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대다수 논문들은 국내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문경연은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민족 무용’ 공연을 통해서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부침을 반영한, 두 국가의 서로 다른 민족 무용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즉 “‘민족’의 변주과정”이라는 하나의 장소 만들기 과정으로 파악한다. 더 나아가 민족 무용을 공연한 무대-고정적이고 실내의 무대가 아닌-공공의 참여가 가능한 카니발 도로 공연과 구민회관이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곳을 통해 대만화된 중국인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이주자로서의 민족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많은 연구에서 결혼이주자들의 공간과 장소는 일반적으로 ‘집’으로 인식되곤 한다. 집에서 이들이 겪는 여러 갈등과 문제점 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결혼이주자들의 장소는 설명되었지만, 문경연의 논문은 결혼이주자들이 만들어내는 민족무용과 무대라는 가변적이고 끊임없는 재/구성 과정이 일어나는 새로운 장소를 제시했다. 이는 곧 이주자와 장소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넓힌 흥미로운 연구이다.

본 특집호로 기획된 4편의 논문은 여성주의 공간론의 서로 다른 층위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축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드러내고 다양한 ‘공간’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했다. 쉽지 않은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준 연구자들과 이들의 논문을 심사한 심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동시에 이번 특집호가 여성주의 공간론의 논의를 증폭시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